

# Issue Comment

- ✓ 개발 중인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한 첫번째 비임상 결과 도출
- ✓ 저용량과 고용량 모두 바이러스 감소 및 임상개선 효과 보여
- ✓ 내년 시판을 목표

## 셀트리온 -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업데이트

- 동사의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첫번째 비임상 결과가 발표됨.
- 이번 동물임상은 충북대와 질병관리본부와 협업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우선 코로나 19에 걸린 후 회복한 환자의 B 세포로부터 유전정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항체를 스크리닝, 1차 비임상 동물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음.
- 임상용 페럿(Ferret, 족제비의 일종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민감해 동물 실험 모델로 쓰임)에 투여되었는데 대조군, 저용량과 고용량군으로 나누었고 7일의 관찰기간을 통해 진행이 됨.
- 그 결과, 저용량과 고용량 투여군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감소하였고, 임상 개선 및 폐조직 개선효과가 나타남.
- 특히 고용량에서의 바이러스 감소는 100마리가 1마리로 줄어든 효과를 내었으며 고용량, 저용량 모두 콧물, 기침, 활동량 관련 임상 점수가 1일부터 개선효과, 5일차부터는 완전 개선효과를 도출하였음.
-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폐조직도 추가로 검사함.
- 항체 투여후 2일차, 6일차로 나누어 폐조직을 관찰하였는데 대조군에서는 염증이 심하게 나타났으나 저용량, 고용량 모두에서 폐의 염증 조직이 정상으로 나타났음.
- 동사는 향후 추가로 햄스터, 원숭이, 마우스의 동물실험을 진행 할 예정. 특히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동물에서 효능실험과 독성 실험 두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함.
- 이에 따라 사람과 유전자 가장 유사한 원숭이에게 독성실험을 진행할 예정.
- 또한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햄스터와 원숭이에게 예방효과까지 있는지도 볼 예정. 이 실험은 6월내로 진행되고 7월중으로는 원숭이, 마우스의 치료능력을 관찰할 예정.
- 따라서 궁극적으로 7월말 또는 8월초중 사람 임상 투여가 가능할 전망.
- 현재 릴리, 암젠, 아스트라제네카, GSK, 리제네론 등 5,6개의 글로벌 업체들이 동사와 비슷한 스케줄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음.
- 동사는 타사와 달리 자체공장을 보유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낮고 효능도 좋다는 장점이 있음. 따라서 렘데시비르 이후 FDA에서도 항체 치료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.
- 동사는 3,4분기 중으로 생산 스케줄을 계획하여 내년 중으로 시판할 목적임.
- 개발 중인 코로나 19 치료제의 첫번째 비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판단,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50,000 원을 유지함.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